

# 朴龜元의 姑射九曲 園林과 姑射九曲詩\*

김문기\*\*

## Ⅰ 차례 Ⅰ

- I. 서 론
- II. 朴龜元의 삶과 姑射九曲 園林의 경영
- III. 姑射九曲의 특징과 姑射九曲詩의 세계
- IV. 결 론

### 【국문초록】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방은 백두대간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洛東正脈과 洛南正脈에 둘러싸여 있고 훌륭한 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姑射九曲, 琴川九曲, 礪溪九曲, 白蓮九曲, 長田九曲, 源明九曲, 海印九曲 등과 같은 구곡원림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구곡원림 중에서 采芝堂 朴龜元이 설정하고 경영했던 고야구곡은 우리나라 최초의 구곡원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에 걸쳐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고야구곡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 고구하였다.

박귀원은 치사한 후, 고향인 밀양군 단장면 고례리로 퇴거하여 당대 사람을 대표하던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등과 교유하며 天人性命에 대하여 토론하고 詩酒와 琴碁를 함께 하며 隱居求道하면서 고야 지역의 맑고 빼어난 산수가 朱子가 은거하던 무이구곡과 닮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구곡을 설정하고 구곡시를 창작했음을 密城世稿에 실려 전하는 采芝堂先生遺稿의 서문과 행장을 통하여 밝혔다. 또한 밀양 고야 지방에 구곡원림이 존재했다는 것은 김종직의 〈紅流洞〉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야구곡시는 박귀원이 고야구곡의 승경을 유람하면서 그 곳을 도가 존재하는 청정한 공간으로 파악하고 세상과 단절된 은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는 유학자적인 꿈과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심경을 형상화한 시라고 평가하였다.

주제어

姑射九曲, 姑射九曲詩, 朴龜元, 武夷九曲, 武夷九曲歌, 雲門九曲, 九曲文化

## I. 서론

朱子の 武夷九曲에서 비롯된 九曲園林은 조선조에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구곡문화를 이룰 정도로 크게 흥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九曲園林은 주로 兩白山을 중심으로 한 白頭大幹을 따라 설정되었다. 따라서 경상도와 충청도에 많이 설정되어 있는데 특히 걸출한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sup>1)</sup>

그러나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방은 백두대간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洛東正脈과 洛南正脈에 둘러싸여 있고 훌륭한 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구곡원림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헌과 답사를 통하여 확인한 부산, 울산, 경남의 구곡원림은 姑射九曲, 琴川九曲, 礪溪九曲, 白蓮九曲, 長田九曲, 源明九曲, 海印九曲 등이다.

이중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하여 조사, 연구한 구곡원림은 姑射九曲이다. 姑射九曲(고야구곡)<sup>2)</sup>은 采芝堂 朴龜元(1442-1506)<sup>3)</sup>이 밀양에 설정

1)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참조.

2) '姑射九曲'은 '고사구곡'이 아니라 '고야구곡'으로 발음해야 한다. 밀양 단장면의 '姑

한 구곡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구곡원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는 逍遙堂 朴河淡(1479-1560)이 설정한 雲門九曲이 우리나라 최초의 구곡원림이라고 보았으나<sup>4)</sup> 1세기 정도 앞선 삶을 살은 채지당 박귀원의 고야구곡이 발견됨으로써 이 고야구곡이 최초의 구곡원림이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2006년도에 〈姑射九曲詩〉를 발견하고 그 원림의 소재지를 탐색한 결과, 고야구곡이 밀양댐 근처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07년 8월에 1차 답사를 통하여 고야구곡의 대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2차 답사를 통하여 고야구곡 아홉 굽이의 정확한 지점에 대한 고증을 완료하고, 〈고야구곡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박귀원의 삶을 문집을 통하여 조명해보고 박귀원이 고야구곡 원림을 설정하여 경영하게 된 동기와 근거를 밝힘으로써 고야구곡이 우리나라 구곡원림 중에서 최초의 구곡이고, 〈고야구곡시〉가 최초의 구곡

射' 마을 이름은 예로부터 '고야' 또는 '고예'라 불리고 漢字로 '姑耶, 古禮, 姑曳, 庫藝, 姑射' 등으로 音借하였다. (『庫藝 一名 姑射』〈密州誌〉). '고야산'의 경우, 大東輿地圖에는 '姑射山'으로, 靑邱圖에는 '姑耶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지금도 단장면의 古老들은 '姑射川'은 '고야천'으로, '姑射山'은 '고야산'으로, '姑射里'는 '고예리'로 부르고 있다. 『국역밀양누정록』(밀양문화원) "四皓亭"조에도 "고야리(姑射里, 고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姑射里 '射'자는 '사' '역' '작' '야' 등으로 발음되는데 官名의 경우, '야'로 읽히며(僕射=복야) 春秋, 穀梁傳, 禮記에는 獸名, 木名의 경우, '야'로 읽혔다. 晉狐射姑出賁狄 〈注〉射一音夜(春秋, 文, 六), 夜姑殺者也 〈注〉左氏作射姑(穀梁, 文)

3) 密城世稿 采芝堂先生遺稿에는 朴龜元이 '世廟 壬戌(1442) 8월 22일'에 태어나서 '中廟元年 丙寅(1506) 2월 21일'에 졸한 것으로 되어 있고, 密城朴氏 杏山公派 족보에도 1442년에 生하여 1506년에 졸한 것으로 되어 있다(壬戌生 中廟丙寅二月二十二日卒). 文科榜目에는 1507년 丁卯 增廣試에 乙科 7위로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자세한 고증이 필요하다. 四皓亭의 편액 '四皓亭重建記'에는 박귀원이 1530년에 졸하였다고 하였다. (考終寔中廟庚寅 則計其世八十九年)

4)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제 23집,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회, 1991.

시임을 논증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아가 고야구곡 각 지점의 위치를 고증하고 그 원림적 특징과 <고야구곡시>의 세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朴龜元의 삶과 姑射九曲 園林의 경영

姑射九曲은 采芝堂 朴龜元이 경상남도 밀양군 단장면 단장천에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원림이다. 박귀원이 고야구곡을 경영할 당시에 단장천은 武夷川이라 불리웠다. 그는 무이천을 따라서 아홉 굽이를 설정하고 배를 타고 유람하며 고야구곡을 경영하였다.

박귀원은 자가 彦齡이고 호가 采芝堂이며 본관이 密城이다.<sup>5)</sup> 1442년 8월 22일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에서 태어났다. 타고난 품성이 따뜻하고 일찍이 재예를 겸비하여 배움에 부지런하고 언행이 어른스러웠다.<sup>6)</sup> 글을 읽을 때는 정성을 다하였고 가난한 친척이나 친지들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는 일을 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동은 그의 천성에서 비롯되었다.<sup>7)</sup> 학문에 있어서는 모든 책을 두루 읽고 그 이치를 꿰뚫었으며, 매일 아침 家廟에 배알한 뒤에 물러나서 책을 대하고 앉아 종일토록 공부하였다.<sup>8)</sup>

5) 박귀원의 <행장>이 실려 있는 『采芝堂先生遺稿』는 당대에 간행되지 못하고 박귀원의 13세손인 朴在瑢(1851~1875)에 의해 간행되었다.

“公之十三世孫 在容氏 以余爲寒暄翁后裔 屬誼甚勤 日袖其逸稿一冊 以示之曰 今距先祖世已遠 累經兵燹 文蹟蕩失 家門零散 事多未遑 斷爛收拾 只是詩若干首 賦一篇而已” 『采芝堂先生遺稿』 <采芝堂先生遺稿序>

6) “姿性溫雅 才藝夙就 甫上學 出就外傳 不待勸督 勤讀不撤 言語動止 儼如老成 見者異之” 『采芝堂先生遺稿』, 「附錄」, <行狀>

7) “又喜施與 親戚知舊之見有貧乏者 必矜憐而賙救之 尺布斗穀之出 殆無虛日 鄉里之待而舉火者 不知其幾 急人之義 蓋其天性然也” 『采芝堂先生遺稿』, 「附錄」, <行狀>

8) “每朝 整衣冠 謁家廟 退對書案 終日欽欽” 『采芝堂先生遺稿』, 「附錄」, <行狀>

사람을 대할 때에는 충정이 두터웠으며 급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도 내색을 하지 않고 침착하였다.<sup>9)</sup> 일찍이 司馬試를 거쳐서 성종 조에 벼슬에 올라 行吏曹正郎, 司憲府監察, 漆原縣監을 역임하며 백성을 잘 다스렸다. 엄히 하는 것과 어질게 하는 것을 각각 적절히 하였고 또 학교를 일으켜 고을의 자제들과 인륜을 가르치고 경전을 강론하니 고을의 교화가 넓게 고루 미쳤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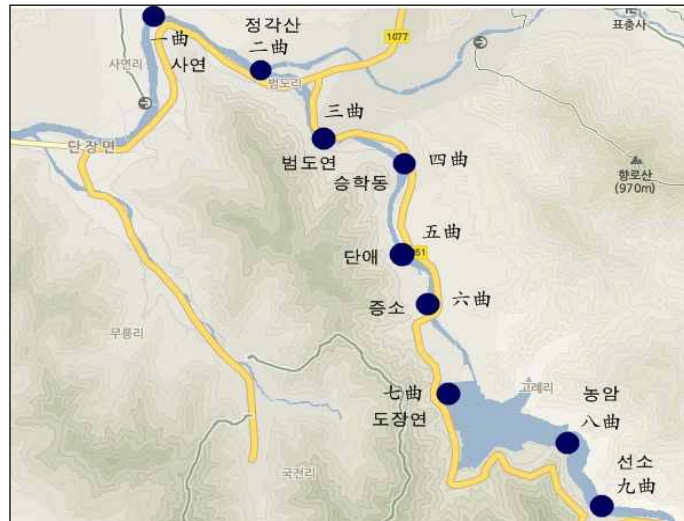
벼슬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갈 마음이 일어나 귀향한 박귀원은 그의 증조 遯窩 朴時乂가 은거하던 곳에 정자를 짓고서 性靈을 기르는 데 힘쓰고 유학을 일으키니 사방에서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 들었다. 산수가 빼어난 고례리의 아홉 굽이를 朱子가 은거했던 武夷山에 견주어 <고야구곡시>를 짓고 스스로 호를 采芝堂이라 하였다.

벼슬살이하고 몇 년이 지나자 탄식을 하면서 고향에 돌아갈 뜻을 두고, 고향 산과 목은 밭이 굽주림을 면할 수 있고, 쌓여 있는 문서와 오래된 글들에 즐거움을 갖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인끈을 풀고는 고향에 돌아와 遯窩公이 은거하신 곳에 정자를 지어서 雲山에 홍취를 붙여서 性靈을 기르고, 유학을 일으키는 일로써 자신의 소임을 삼으니 사방의 학자 중에 문풍을 듣고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다. 산수가 맑고 빼어나며 굽이도는 지형이 아홉 굽이인 것이 朱夫子가 은거한 곳과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權歌> 한 편을 차운하여 그 뜻을 갖들었다. 이때에 혹 산에 올라 지초를 캐면서 세상의 시비에 관여하지 않으며 스스로 호를 采芝堂이라 하였다.<sup>11)</sup>

9) “雖家人父子 未嘗見其愴容 對人接物 一以忠厚 事或有急 亦未嘗疾言遽色” 『采芝堂先生遺稿』, 「附錄」, 〈行狀〉

10) “早中司馬 成廟朝 登第 行吏曹正郎 司憲府監察 漆原縣監 到縣 臨民御史 皆有條理精密 嚴恕各適其宜 又勤於興學校明教化 與邑中子弟 講明彝倫 談論經籍 郡中治然” 『采芝堂先生遺稿』, 「附錄」, 〈行狀〉

11) “蒞官數年 概然有卷歸之意 以爲故山荒田 可以饒飢 堆案古書 足以寓樂 遂解紱還鄉 亭於 遯窩公杖屨之所 寄興雲山 以養性靈 又以興起斯文爲己任 四方學者 聞風而歸者 多焉 山水清絕 縈回九曲 有似乎朱夫子考槃之地 故次權歌一篇 以寓其志 時或登山采芝 不問世



▲ 고야구곡 위치도

이를 통해 볼 때, 박귀원은 벼슬에 뜻을 접고 고향에 돌아와 주자가 경영했던 武夷九曲을 모방하여 고야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한 것 같다. 박귀원이 설정한 고야구곡은 제1곡이 泗淵, 제2곡이 鼎角山, 제3곡이 泛棹淵, 제4곡이 昇鶴洞, 제5곡이 丹崖, 제6곡이 甌沼, 제7곡이 道藏淵, 제8곡이 籠巖, 제9곡이 船沼이다.<sup>12)</sup> 그런데 고야구곡 아홉 굽이 중에서 현재 제7곡 도장연, 제8곡 농암, 제9곡 선소는 밀양댐에 수몰되어 그 원형은 볼 수 없고 물위에 솟아 있는 산의 모습과 경치를 통하여 미루어 짐작해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박귀원이 이렇게 고야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당

間是非 自號采芝堂”『采芝堂先生遺稿』, 「附錄」, 〈行狀〉

12) 체지당 박귀원의 증조부인 돈와 박시예가 고야산에 은거할 당시에도 농암에서 도연까지 막연하나마 구곡이 있었는 듯하다. 그러나 구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경영한 이는 박귀원이라 할 수 있다. “籠巖之下 棹淵之上 一條寒川 自載岳而下 有九曲 源深而流清 川名武夷 亦非偶然也”『遜窩先生遺稿』, 「附錄」, 〈武川齋記〉

시 士林의 중추적인 유학자인 估畢齋 金宗直(1431-1492), 寒暄堂 金宏弼(1454-1504), 一蠹 鄭汝昌(1450-1504) 등과 더불어 고향인 밀양의 가야촌 주위의 勝景에서 교유하며 隱求의 삶을 영위한 자취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이때에 점필재 김종직 선생이 고향에 돌아와 은혜롭게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고 한훤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두 선생이 이어서 이르러 여러 날을 머무니 天人性命의 설과 詩酒琴碁의 즐거움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즐거운 분위기가 무르익자 점필재 옹이 돌아보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비록 나이가 같지 않지만 학문에 뜻을 둔 것은 한결같이 서로 같다. 이 산과 골짜기를 돌아보니 깊은 것은 商山과 닮았고 쓸쓸한 얼굴과 머리는 四皓와 닮은 점이 있으니 오랜 세월 이곳에서 노닌다면 거의 같아질 것이라고 말할 만하거늘 어찌하여 그 형상을 그려서 산중의 故事를 만들지 않겠는가?” 하였다. 드디어 화공을 불러 그림을 그려 벽 위에 걸고는 그 정자를 四皓亭이라 이름하였다. 각각 시를 읊어 벽에 적었는데 선생이 먼저 原韻을 가져다 지었는데 간략히 언급하면 “드러운 얼굴과 머리가 그림에 비치니, 모두 밝은 시절 물러난 늙은 몸이라네.”라고 하였다. 한훤당 김굉필과 일두 정여창은 화운한 시가 있는데 잃어버려 전하지 않는다. 점필재는 별도로 장편 시를 지었고 선생은 또 四皓圖를 그리고 시를 지어 이를 서술하였으니 그 도의로 사귀는 돈독함이 이와 같았다.<sup>13)</sup>

고향에 돌아온 박귀원은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등과 교유하며 天人性命에 대하여 토론하고 詩酒와 琴碁를 함께하며 자연에 은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박귀원,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등이 비록 나이는

13) “時估畢齋金先生 歸臥鄉廬 惠然來訪 金寒暄 鄭一蠹 兩先生 相繼而至 留連數日 天人性命之說 詩酒琴碁之樂 靡不具焉 歡洽 畢翁顧謂曰 吾輩 雖有年紀之參差 志業之相孚 一也 瞻茲山谷 深邃勢巖商山 顏髮蕭蕭 有似四皓 千載茲遊 亦可謂庶幾焉 盍圖畫其像 以作山中故事耶 遂招工模寫 揭諸壁上 名其亭曰 四皓 各吟詩題壁 先生首拈原韻 其略曰 垂垂顏髮照眞圖 俱是明時退老軀 寒蠹 有和詩 佚不傳 畢齋 則別爲長篇 先生 又作四皓圖 賦以叙之 其誼契道義之篤 如此也” 『采芝堂先生遺稿』, 『附錄』, 〈行狀〉

달랐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은거하는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학문에 뜻을 둔 것이 한결같이 서로 다르지 않았고 산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기 때문이다. 김종직이 이러한 교유에 대하여 商山의 四皓에 견주니 박귀원이 자신의 정자를 四皓亭이라 이름하고 이를 기리기 위해 〈四皓亭詩〉와 〈四皓圖〉를 그렸다.

이 당시 박귀원이 교유했던 문인 중에 김종직은 고야구곡의 공간을 儒者의 이상향으로 시에서 형상화하였다. 그의 시 〈紅流洞〉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九曲飛流激怒雷	아홉 굽이 흐르는 물 우뢰처럼 부딪치니
落紅無數逐波來	떨어진 꽃 수없이 물결 따라 내려오네
半生不識桃源路	반평생 지나도록 도원 길을 몰랐으니
今日應遭物色猜	오늘에 응당 물색의 시기함을 만났다네 <sup>14)</sup>

紅流洞을 찾은 김종직은 아홉의 굽이를 이루며 세차게 흐르는 물살 위로 桃花가 떨어져 흘러오는 것을 보고 桃源을 생각하였다. 그가 생각한 도원은 구곡의 源頭처럼 청정한 공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서 반평생 동안에 도원 가는 길을 모르다가 이제야 物色의 시기함을 만났다고 하였다. 반평생 동안 벼슬에 나아가 지내다보니 자연에 은거할 시기를 놓쳤는데 드디어 홍류동에 찾아드니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은거하고 싶은 이상향으로 九曲의 공간을 형상화하였다.

박귀원은 이렇게 김종직 등과 교유를 하면서 자연스레 士林들에게 은거의 전범이 되었던 주자의 무이구곡을 수용하여 자신의 은거지에 구곡을 직접 설정하고 경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14) 『佔畢齋集』 卷14, 「詩」, 〈紅流洞〉.



나는 번잡함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좋아하여 姑射山에 터를 정하고 집을 지으니 아름다운 골짜기가 서리어 굽이돌고 구름 덮인 숲이 맑고 깨끗하여 참으로 자취를 숨기고 자적하는 장소로 삼기에 충분하다. 동쪽에는 한 골짜기가 있어 武夷川이라 하는데 마을 서쪽을 안고 흘러 아홉 굽이를 돌아 흐르니 있는 곳마다 別區를 이룬다. 산과 내의 이름이 우연히 朱夫子께서 은거하신 땅과 합치하니 나의 노둔한 자질로 천 년 후에 태어나 감히 유풍을 사모하여 <權歌詩>에 차운한다.<sup>15)</sup>

고야산 아래에 터를 잡고 집을 지은 박귀원은 아름다운 골짜기와 맑은 시내가 주자가 살았던 무이산의 경관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하였다. 아름다운 골짜기가 굽이돌고 구름 덮인 숲이 맑고 깨끗하여 참으로 자취를 숨기고 자적하는 장소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武夷川이 아홉 굽이를 돌아 흐르며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니 주자가 은거한 무이산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외람됨을 무릅쓰고 그는 <武夷權歌>에 차운하여 <姑射九曲詩>를 지으면서 고야구곡의 경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김종직의 <홍유동> 시, 박귀원의 행장, 고야구곡시 서문을 통하여 볼 때, 박귀원이 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하면서 구곡시를 읊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逍遙堂 朴河淡보다 적어도 一世 [30년] 정도 앞선 삶을 산 朴龜元이 설정한 고야구곡은 우리나라 최초의 구곡원림이라 할 수 있고, 고야구곡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구곡시라 할 수 있다.

武夷千載地鍾靈    무이산은 오랜 세월 동안 땅이 신령하여  
上有飛泉漱玉清    위에 있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 맑다네

15) “余厭煩好靜 卜築於姑射山中 綉谷盤紆 雲林清灑 寔足爲遐跡自適之所矣 東有一谷曰武夷川 而抱村西流 縈回九曲 在在成別區 山名溪號 偶合於朱夫子幽居之地 以余魯質 生於千載之下 敢慕遺風 而敬次權歌詩云”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 【并小叙】

短櫂高歌臨九曲  노를 짓고 노래를 하며 구곡에 임하니  
有誰料理箇中聲  그 누가 뱃노래의 참뜻을 헤아릴까<sup>16)</sup>

박귀원은 고야구곡 유람을 시작하며 무이산을 생각하였다. 무이산은 오랜 세월 동안 땅이 신령하였다. 무이산이 이렇게 신령할 수 있는 까닭은 상류에 있는 폭포에서 맑은 물이 쉼없이 떨어져 흘러오기 때문이라 하였다. 무이산처럼 고야산도 땅이 신령하니 무이천을 흐르는 맑은 물이 아홉 굽이를 흘러가며 땅을 맑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고야구곡 청정한 공간을 박귀원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며 유람을 하는데 그 누가 뱃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누구는 다름이 아니라 박귀원 자신이며 뱃노래는 고야구곡을 읊은 〈고야구곡시〉가 아닐 수 없다.

### Ⅲ. 姑射九曲의 특징과 〈姑射九曲詩〉의 세계

#### 1. 제1곡 泗淵

고야구곡 제1곡 泗淵은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단장면 사무소에서 표충로를 따라 밀양댐 방향으로 약 2.4km 정도 가다보면 도로의 좌측에 단장천으로 내려가는 작은 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유원지가 나오고 그 아래로 단장천이 흘러간다. 단장천은 이곳에 이르러 크게 굽이돌며 흘러가는데 이 굽이가 고야구곡 제1곡 사연이다. 단장천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바라보면 좌측에는 산줄기가 둘러 있고 우측에는 산밭 치에 밭이 있으며 그 옆에 피서객을 위한 캠핑장과 펜션 건물이 자리하고

16)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序詩.

있다. 단장천 맑은 물이 이 지점에서 크게 굽이돌며 깊은 못을 이루고 있는데 사연리에 있는 못이기 때문에 사연이라 이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귀원은 이 굽이에 이르러 배를 타고 고야구곡 유람을 시작하였다. 그는 유람을 시작하며 자신의 감회를 “처음 사연에서 배에 오르니 天台山 산색이 남쪽의 두둑에 그윽히 아름답다.”<sup>17)</sup>라고 표현하였다.

一曲泗淵引釣船 일곡이라 사연에서 고깃배를 끌어 대니  
 天台秀色倒長川 천태산 수려한 산색이 긴 내에 비치네  
 無人會得滄洲趣 창주의 의취를 잘 아는 사람 없으니  
 石面蒼苔羅翠烟 돌 위 파란 이끼 푸르른 연기에 덮혔네<sup>18)</sup>

박귀원은 고야구곡 제1곡 사연에서 고깃배에 올랐다. 앞으로 펼쳐진 구곡의 가경을 차례로 거슬러 오르며 유람하기 위해 배에 오르는데 천태산의 수려한 산색이 긴 시내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제1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며 滄洲의 의취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였다. 창주의 의취는 다름 아니라 주자가 무이구곡을 경영했던 의취를 말하니 이는 그 옛날 주자가 무이구곡을 경영하며 入道했던 삶을 아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한 말이다. 그리고 창주의 의취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 위의 파란 이끼가 연기에 덮혔다고 하였다. 고야구곡에 내재하는 도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없어 고야구곡의 진경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제1곡에서 박귀원은 남들이 볼 수 없었던 구곡의 진면목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 안개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17) “始自泗淵上船則天台山色窈窕于南畔矣”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一曲詩 註.  
 18)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一曲詩.

## 2. 제2곡 鼎角山

鼎角山은 구야구곡 제2곡의 남쪽에 솟아 있는 산이다.<sup>19)</sup> 단장천 앞으로 우뚝 솟아 있는데 그 규모가 매우 커서 한 굽이에 국한될 수 없지만 제2곡에서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고야구곡 제2곡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2곡 정각산은 현재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에 위치한다. 제1곡 사연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8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시내가 한번 굽이도는 지점에 이른다. 이 굽이는 표충사 방면에서 흘러오는 시전천이 합류하여 단장천의 수량이 불어나는 지점이다. 제2곡은 고야구곡의 다른 굽이와는 달리 제법 너른 들이 펼쳐져 주변이 확 트인 공간이다. 시내의 좌우에는 논과 밭이 있고 그 가에 인가가 있으며 인가 뒤로 산들이 높이 솟아 있다.

이 굽이 좌측에는 盤溪亭이 있는데 1775년 李瀾(1720-1807)이 지은 정자이다. 이숙은 李士弼(1503-1556)의 8세손으로 이 굽이에 은거하며 孫思翼, 申國賓, 安仁一, 南景義 등과 道義의 사림을 가졌다. 반계정사는 고종 때에 이숙의 5대손인 李韶九가 중수하였는데 현재 〈盤溪亭十二景〉시가 정자에 걸려 있어 당시 이곳에 은거했던 선비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다. 과거에는 반계정 앞으로 흐르는 단장천 가에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태풍으로 인하여 모래가 거의 사라지고 자갈밭이 되었다. 그러나 여름이면 단장천의 맑은 물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러 피서를 한다.

二曲叢巖鼎角峯 이곡이라 떼지어 늘어선 정각산 봉우리  
花鱖勝日媚春容 꽃 무더기 봄의 모습 온종일 어여쁘네

19) “鼎角山名”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二曲詩 註

登臨強欲尋佳境 산에 올라 힘써 가경을 찾고자 하지만  
 祇見嵐烟疊且重 다만 짙첩 쌓인 푸른 연기 볼 뿐이네<sup>20)</sup>

제1곡 사연에서 출발하여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 박귀원은 제2곡 정각산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 굽이에 서서 정각산 봉우리를 바라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다. 그 꽃들은 이 굽이에 봄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온종일 어여쁨을 뽐내고 있었다.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서 아홉의 굽이를 거슬러 올랐지만 제2곡의 정각산은 그에게 굽이의 온전한 가경을 드러내지 않았다. 푸른 연기가 솟아 있는 정각산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박귀원이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푸른 연기가 겹겹이 드리운 경관뿐이었다. 그 속에 가경이 있는 것은 분명하였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제2곡에서 박귀원이 찾고자 하였던 가경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박귀원은 儒者이니 고야구곡을 유람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유람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이보다는 자연 속에 내재하는 道를 궁구하는 것이 더 큰 목표였다. 따라서 가경은 그가 궁구하고자 하는 도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파악해도 좋을 것이다. 도를 찾아 오르는 그에게 그가 찾으려는 도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박귀원은 이러한 사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도를 궁구하는 유람을 계속하였다.

### 3. 제3곡 泛棹淵

고야구곡 제3곡 泛棹淵은 마을 이름인데<sup>21)</sup> 현재 밀양시 단장면 범도

20)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二曲詩

21) “泛棹淵村名”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三曲詩 註.

리이다. 마을 앞으로 단장천이 굽이돌면서 형성된 못이 범도연인데 범도라는 마을 이름은 이 못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마을 앞으로 난 고레로를 가로질러 건너가서 단장천으로 내려가면 맑은 물이 제법 많이 흘러간다. 범도리에서 바라보면 맞은편에 4~5m 정도의 암벽이 펼쳐지는데 시냇물이 이 암벽을 부딪치며 흘러간다. 암벽 앞은 수심이 깊어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지점이 고야구곡 제3곡 범도연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옛날에는 물살이 세차게 흘러서 이곳을 거슬러 오르는 배들이 힘에 겨워 노를 멈추고 잠시 쉬었기 때문에 범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단장천을 거슬러 오르며 바라보면 좌측에는 갈대가 무성히 자라고 있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다. 우측에는 암벽이 있는데 암벽 위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암벽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이 굽이의 경관은 구곡을 거슬러 오르는 遊者에게 잠시 멈추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三曲擘上水船	삼곡이라 빼걱빼걱 물 거슬러 올라가는 배
淵名泛棹定何年	범도라는 못 이름 어느 해에 지었는가
傍人不識推移力	다른 사람 노 저어갈 힘 알지 못하여
枉費光陰擡自憐	세월만 허비하니 모두 절로 가련하네 <sup>22)</sup>

박귀원은 제2곡 정각산에서 힘을 다해 배를 저어 제3곡 범도연에 이르렀다. 그는 범도연에서 굽이의 이름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였다. 범도연에서 ‘泛棹’는 ‘노를 젓지 않고 멈춘다’는 뜻이니 ‘泛棹淵’은 ‘노를 멈춘 못’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야구곡은 거슬러 오를수록 아름다운 경치가

22)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三曲詩.

연이어 펼쳐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박귀원은 다른 사람들이 범도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즉 이 굽이에서 세월만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3곡 범도연에서 泛棹는 함의를 가진 말이다. ‘노를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진 범도를 통하여 박귀원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비유하여 드러냈다. 학문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학문을 통하여 도를 얻는 과정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만나면 중간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힘이 든다는 이유로 노를 멈추고 서 있는 배처럼 학자들이 난관을 만나면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고야구곡을 거슬러 오르며 도를 찾아 떠나는 유람에서 제3곡 범도연은 박귀원이 자신의 학문적 자세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굽이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학문적 세계가 도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는 공간이었다.

#### 4. 제4곡 昇鶴洞

고야구곡 제4곡 昇鶴洞도 고야구곡의 한 마을 이름이다.<sup>23)</sup>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서 昇鶴이란 이름을 가진 마을을 찾을 수 없다. 정각산 옆에 높이 솟은 산이 승학산인데 고야구곡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아래에 있는 어느 마을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가 어렵다. 제3곡 범도연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7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단장천가에 우뚝 솟아 있는 암벽을 만난다.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암벽이 시내에 임하여 있는데 그 바위 사이에 수령이 오래 된 소나무가 뿌리를

23) “昇鶴洞名”『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四曲詩註.

내리고 있어서 이 지점이 승학동이라 추정할 수 있다. 박귀원의 〈고야구곡시〉 제4곡시를 살펴보면 솟아 있는 암벽이 있고 오래된 소나무가 거꾸로 자란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굽이가 제4곡 승학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현재 승학동은 높은 산이 둘러 있는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두어 채의 인가만이 자리하여 과수 농사를 짓고 특용 작물을 재배한다. 이 굽이의 진면목은 단장천을 건너가서 바라보아야 하지만 시냇가에 여러 가지 풀들이 자라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다. 다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높이 솟은 암벽이 가운데 자리하고 그 뒤로 여러 겹의 산줄기가 두르고 있어서 학이 깃들어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짐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四曲參天削壁巖 사곡이라 하늘 닿은 깎아지른 암벽에는  
 枯松倒掛影毵毵 고송이 거꾸러 메달려 그림자 드리우네  
 雲邊昇鶴歸何處 구름 가 오른 학은 어디로 돌아갔는가  
 惟有千秋月印潭 오랜 세월 동안 달빛만이 못에 비치네<sup>25)</sup>

고야구곡 제4곡 승학동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암벽이 자리한 굽이이다. 박귀원이 이 굽이에 이르니 하늘에 닿을 듯한 깎아지른 암벽이 눈앞에 솟아 있고 그 암벽에 오래된 소나무가 거꾸러 메달려 자라고 있었다. 그는 옛날 이 굽이에 있었던 학을 생각하였다. 높이 구름 까지 날아오르

24) 박귀원이 지은 시에 승학동을 대상으로 읊은 시가 있는데 이 시에 “다만 구름 사이 한 절만 보이네.”라는 시구가 있다. 현재 범도리와 평리 사이에 봉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이 승학동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박귀원이 언급한 그 절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鶴歸無復躡仙蹤 祇見雲間一梵宮 但覺風烟隨意好 便驚塵土轉頭空 親朋自是提壺勸 ○客何曾蠟屐同 俯仰吾生終宇宙 神襟飄灑碧山中” 『采芝堂先生遺稿』, 「詩」, 〈過昇鶴洞偶吟〉.

25)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四曲詩.



는 학이 이 굽이의 소나무에 깃들여 살았다. 흰 빛깔의 학은 이 굽이의 청정한 기운을 받아서 고고한 자태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학이 어디론가 떠나버려 이 굽이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박귀원은 학이 떠난 이 굽이에 오랜 세월 동안 달빛만이 못에 비친다고 하였다.

제4곡 승학동에 깃들여 살았던 학도 한 마리 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고한 자태를 가진 학은 신선이 타고서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고고한 인품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귀원이 제4곡 승학동에 이르러 이 굽이에 있었던 학을 생각하며 그 옛날 고야에서 은거했던 선조 돈와 박시예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단종이 폐위될 때에 靑松府使를 그만두고 이곳에 은거하며 고고한 삶을 살았던 선조<sup>26)</sup>를 학에 비유했을 수 있을 것이다. 돈와공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못에 비친 달빛처럼 시간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 5. 제5곡 丹崖

고야구곡 제5곡 丹崖는 현재 밀양시 단장면 평리에 위치한다. 평리 앞을 흐르는 단장천 맞은편에 커다란 바위가 시냇가에 있는데 이 바위가 단애이다. 박귀원이 이 바위를 단애라고 명명한 까닭은 그 위에 丹坪리가 있기 때문이다.<sup>27)</sup> 박귀원이 말한 단평리는 바로 평리이다. 그는 단평리 앞에 솟아 있는 벼랑이라 하여 단애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현재 평리는 팜스테이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단애가 있는 곳에는 체험 학습장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체

26) “遜窩 朴先生 當端宗遜位時 以靑松府使 投紱歸鄉 卜于武川之上 以泉石自娛 不復出世” 『遜窩先生遺稿』, 『附錄』, 〈武川齋記〉.

27) “上有丹坪里 故曰丹崖”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 第五曲詩 註.

힘활동을 하고 있다.

평리는 박귀원이 태어나고 숨을 거둔 고례리에 속하는 자연 부락이다. 고야구곡을 경영한 박귀원은 벼슬에 나간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고례리에 은거하며 어른에게 효성을 다하고 친구를 돈독히 사귀고 부모를 잘 봉양하였다. 부모상을 당해서는 예절에 따라 제례 용구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며 슬픔이 깊어 몸을 상했으며, 형제 5명이 한 방에서 같이 살았는데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고 샘하는 일이 없었다.<sup>28)</sup> 이뿐만이 아니라 정자를 지어서 학문에 정진하니 사방에서 많은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 왔다. 이는 주자가 무이구곡 제5곡 大隱屏에 武夷精舍를 짓고 학문에 정진하며 제자를 가르친 사실과 다르지 않았으니 박귀원이 고야구곡 제5곡을 단애로 설정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五曲回看石逕深	오곡이라 빙 둘러보니 돌길이 깊은데
丹崖咫尺秀穹林	가까운 단애는 우거진 수풀에 솟아 있네
林端小屋人猶在	숲 가 오두막엔 사람들 아직 살고 있어
竟日班荆話寸心	종일토록 함께하며 마음트고 얘기하네 <sup>29)</sup>

고야구곡 제5곡은 박귀원에게 단힌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빙 둘러 돌길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단애가 있으며 우거진 수풀이 그 곁에 있었다. 이 굽이는 세상과는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박귀원은 이 굽이에 이르러 수풀 가에 자리한 오두막을 발견하였는데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은 隱者가 지은 집이 아닐 수 없다. 그는

28) “及長 孝友隆篤 事親 必以養志承順爲務 便身之物 適口之味 未嘗乏絕 及遭大故 哀毀備至 喪葬祭奠 一遵禮制 兄弟五人 同居一室 物我無間 有無不計 聯牀讀書 極致湛翁” 『采芝堂先生遺稿』, 「附錄」, 〈行狀〉

29)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五曲詩.

이 집에 찾아 들어 주인을 만났고 그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느덧 하루가 지나갔다. 주고 받은 이야기가 막힘이 없었고 거스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제5곡의 오두막에 사는 은자는 누구일까? 박귀원이 만난 은자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다름 아닌 박귀원 자신이라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지나가는 길손이 은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만 자신이 이 굽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객관화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설정해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5곡에서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살지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학문을 논하고 도를 궁구하는 은자는 바로 박귀원이 추구하는 삶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 6. 제6곡 甌沼

고야구곡 제6곡 甌沼는 고례리 앞에 있는 못이다.<sup>30)</sup> 제5곡 단애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단장천 맑은 물이 고여 만든 못이 나타나는데 이 못이 바로 증소이다. 시루 모양의 못이라 하여 증소라고 하였는데 상류에서 흘러온 물이 이 굽이에서 잠시 머물면서 못이 되었다. 증소의 좌측에는 휴게소가 있고 우측에는 아랫 부분이 바위이고 윗 부분이 소나무로 덮혀 있는 야산이 있다. 증소의 맑은 물과 야산의 소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산수화를 그려내는데 지금은 주위의 개발로 인하여 일부만이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증소 우측 야산에는 인동장씨 소유 洛洲亭이 자리하고 있다. 낙주정은 張善興을 추모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1918년 건립한 정자인데 그 옛날 농암대에 머물렀던 점필재 김

30) “姑射村 前有甌沼”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六曲詩 註.

종직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와서 가정에 심취하여 시를 지었다고 전해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자 안에 甌淵書室이 있어서 이 굽이가 증소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낙주정에는 이 굽이의 경치를 읊은 시를 새겨 놓은 현판이 많이 걸려 있어 이곳에 은거하며 시회를 즐겼던 선비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다.

六曲層嵐控甌灣 육곡이라 드리운 남기 증소를 덮으니  
 衡茅無事晝常關 띠집에 일이 없어 낮에도 늘 문을 닫네  
 落花啼鳥朦朧處 지는 꽃 우는 새 몽롱히 사는 곳에  
 籠得春心鎖日間 춘심을 품고 온종일 한가히 보낸다네<sup>31)</sup>

박귀원은 고야구곡 제6곡 증소에 도착해 굽이를 둘러보고 이곳이 세상의 혼탁한 기운이 이를 수 없는, 청정한 기운으로 가득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주변의 경관과 띠집을 짓고 사는 이의 삶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다. 박귀원은 아지랑이가 낀 증소를 바라보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띠집에 사는 이가 할 일이 없어서 대낮에도 띠집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고 한가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띠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지는 꽃을 보고 우는 새소리를 들으며 욕심없이 살아가니 물욕에 물든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春心을 가지고 있었기에 온종일 한가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띠집을 짓고 사는 이의 한가로운 마음은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경지이다. 자아와 세계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부조리로 인하여

31)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六曲詩.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를 때 한가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띠집에 사는 사람은 지는 꽃을 보고 우는 새소리를 들으며 바보처럼 살았다. 그는 지는 꽃과 우는 새와 하나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온종일 한가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도를 찾아 떠난 유람이 극처에 가까워 올수록 득도의 경지에 이르는데 한가로운 마음은 이러한 경지를 드러내는 표상이 아닐 수 없다.

### 7. 제7곡 道藏淵

고야구곡 제7곡 道藏淵은 현재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2001년 완공된 밀양댐에 수몰되어 그 지점과 지형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제6곡 증소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5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산중턱에 德達里가 있었고 그 너머 단장천에 도장연이 있었다고 한다. 단장천에 형성된 연못이 제법 깊고 물이 차가워 마을 주민들이 여름이면 찾아와서 먹을 감으며 피서를 했다고 한다. 박귀원의 기록에도 덕달리 너머에 도장연이 있다고<sup>32)</sup> 하니 이를 증명한다.

七曲扣舷泊近灘	칠곡이라 뱃노래 부르며 여울에 정박해
道藏淵色試回看	도장연 물빛을 머리 돌려 빙 둘러보네
身邊忘却羊裘着	나의 몸에 양구 입는 것을 잊어버리니
忽覺斜風特地寒	빗긴 바람에 갑자기 심한 한기 느끼네 <sup>33)</sup>

고야구곡 제7곡 도장연은 여울이 만든 못이다. 여울이 굽이도는 지점

32) “越德達里 有道藏淵”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七曲詩 註.

33)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七曲詩.

에 냇물이 머물면서 생긴 연못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박귀원은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뱃노래를 불렀다. 그가 부른 뱃노래는 고야구곡을 읊은 〈고야구곡시〉가 아닐 수 없다. 흥에 겨워 〈고야구곡시〉를 부르며 박귀원은 여울에 배를 대고 도장연을 빙 둘러보았다. 도장연은 이름처럼 道를 갈무리한 연못이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儒者가 추구하는 도가 갈무리 되어 있어 道藏이라 이름하였다.

박귀원은 도장연에 이르러 羊裘를 입는 것을 잊었다고 하였다. 양구는 양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隱者가 입었던 옷이다. 後漢 시대 嚴光이 소년 시절에 劉秀와 함께 공부하였는데, 유수가 후한의 황제가 되자 성명을 바꾸고 은거하여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유수가 그의 어진 덕을 그리워한 나머지 전국 각지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양 가죽으로 만든 옷을 몸에 걸치고 桐江의 늪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엄광을 초빙한 일이 있다.

박귀원은 儒者로서 살려고 하였으나 혼탁한 세상에 환멸을 느꼈으니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엄광처럼 양구를 입고서 隱者로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귀원은 양구를 입는 것을 잊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된 은자가 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는 學者가 되려고 하였다는 말이다. 고야구곡 유람은 이러한 그의 의지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구를 입지 않은 박귀원은 도장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차가움을 느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궁구한 道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8. 제8곡 籠巖

고야구곡 제8곡 籠巖은 고야구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는

굽이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제7곡 도장연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2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바위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굽이에 이르는데 이곳이 제8곡 농암이라 한다. 박귀원은 이에 대해 層巖이 만 길인데 메달리고 쌓인 것이 삼태기 같아서 이 굽이를 농암이라 하였다<sup>34)</sup>고 하니 이를 뒷받침한다. 농암의 아래에는 50~60명이 앉을 수 있는 바위가 있었고 그 곁에는 점필재 김종직이 강학하던 籠巖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농암정 곁의 바위에 '籠巖臺'라고 새겨 놓아 농암정이 있었던 지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 굽이의 아랫부분은 밀양댐 건설로 물에 잠겼지만 그 윗부분은 잠기지 않아서 멀리서 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 밀양댐 외곽으로 새로운 도로를 따라 가다 전망대 아래 지점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산수화와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 물길의 좌측과 우측에 솟아 있는 바위들은 흰빛이고 댐의 물은 푸른빛을 띠고 있어 두 빛깔의 대조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동안 자리를 떨 수 없게 만든다.

八曲嶒峻眼欲開 팔곡이라 높고 험한 지형 열리려 하니  
 籠巖泉石幾重回 농암의 천석 몇 겹이나 빙 돌렸는가  
 行行前路多奇翫 앞길 가고 감에 기이한 볼거리 많으니  
 此日中流扣櫓來 이 날 물길 따라 뱃노래 부르며 오노라<sup>35)</sup>

고야구곡 제8곡 籠巖은 닫힌 공간이 열리는 지형이다. 높고 험한 지형의 닫힌 공간이 이 굽이에 이르러 조금씩 열렸다. 수많은 층암이 솟아

34) “層巖 萬丈懸積如籠 故曰籠巖也”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 第八曲詩 註.

35)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 第八曲詩.

있는 이 굽이는 고야구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전개된 공간이다. 박귀원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기이한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 하였다. 시내 양쪽으로 솟은 바위는 그 경관이 예사롭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경을 유람하였다.

제8곡은 극처에 가장 가까운 공간이다. 기이한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청정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청정한 세계는 儒者가 궁구하는 도가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 도가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이 뱃노래를 부르며 이 공간에 이르렀다. 이 굽이에 점필재 김종직이 은거한 농암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이한 볼거리는 그의 학문 세계를 의미하고 물길을 따라서 뱃노래를 부르며 찾아오는 사람들은 김종직의 학문을 존중하여 찾아오는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 9. 제9곡 船沼

고야구곡 제9곡 船沼는 소 가운데 浮石이 있었는데 배의 형상과 매우 닮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sup>36)</sup> 선소는 단장천 가운데 있었던 바위로 수위가 높아지면 물에 잠겼다가 낮아지면 드러나서 마치 물에 떠 있는 바위와 같았다고 한다. 이 바위는 밀양댐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반출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제9곡 선소는 제8곡 농암에서 물길을 따라 약 1km 정도 거슬러 오르는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밀양댐에 수몰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가지고 고증하면 선소가 있었던 지점은 추정할 수 있다. 박귀원

36) “船沼者 沼中有浮石 悅若船形 故是以得名”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 第九曲 詩註.



이 이 굽이를 고야구곡의 極處로 설정한 까닭은 이 지점이 밀양과 언양의 경계 지점에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귀원은 이 굽이를 벗어나면 다른 지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은거지 경계에 제9곡을 설정하여 고야구곡의 源頭로 삼았던 것이다.

九曲尋源覺爽然  구곡이라 원두를 찾으니 마음 상쾌하고  
 落江流水滿前川  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앞내에 가득하네  
 復看小沼如船碧  배를 닮은 작은 소 푸른 빛 다시 보니  
 襟契飄蕭洞裏天  동천의 청정한 기운에 마음이 하나되네<sup>37)</sup>

박귀원은 고야구곡 제9곡 船沼에 이르니 마음이 상쾌하다고 하였다. 단순히 유람을 마치는 제9곡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상쾌할 수는 없다. 제9곡이 가지는 의미가 그에게 남다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9곡 선소는 고야구곡의 원두로서 고야구곡을 흐르는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맑은 물이 이 굽이에서 시작하여 구곡을 흘러가서 아홉의 굽이를 청정하게 하니 제9곡은 아홉 굽이 중에서도 가장 맑은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박귀원은 이 굽이를 찾고나서 마음이 상쾌했던 것이다.

박귀원은 선소에 이르러 굽이를 내려다 보았다. 이 굽이는 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앞으로 보이는 시내에 가득하였다. 고야구곡을 섬없이 흘러가며 세상의 혼탁한 기운을 씻어 내어 청정한 공간으로 만드는 맑은 물이 제9곡의 굽이에 가득함을 바라보고 마음이 상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귀원이 배 모양을 한 선소를 보니 소에 담긴 물이 푸른 빛을 띠었다. 바닥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이 선소를 채우니 물이 푸른 빛을 띠었다. 이러한 물빛은 동천을 청정하게 하고 이곳에

37) 『采芝堂先生遺稿』, 「詩」, 〈九曲詩〉第九曲詩.

도착한 박귀원을 청정하게 하니 박귀원이 이 굽이에서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IV. 결 론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장 주목되는 구곡은 고야구곡이다. 이는 고야구곡이 우리나라 최초의 구곡원림이고 〈고야구곡시〉가 최초의 구곡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체지당 박귀원이 밀양면 단장면에 구곡을 설정하고 구곡시를 읊으면서 고야구곡을 경영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 후, 고야구곡 각 굽이의 위치 고증과 원림적 특징, 고야구곡시의 시세계를 분석하였다.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박귀원은 치사한 후, 고향인 밀양군 단장면 고례리로 퇴거하여 증조부인 遯齋公이 은거하던 곳에 四皓亭을 짓고, 雲山에 흥취를 붙여서 性靈을 기르며 유학을 일으키자 사방의 학자 중에 문풍을 듣고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당대 사림을 대표하던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등과 교유하며 天人性命에 대하여 토론하고 詩酒와 琴碁를 함께하며 隱居求道하였다. 그는 고야 지역의 산수가 맑고 빼어나며 굽이도는 지형이 朱子가 은거하던 무이구곡과 닮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야구곡을 설정하고 〈고야구곡시〉를 읊으면서 노닐었다. 고야구곡이 존재했다는 것은 김종직의 〈紅流澗〉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제1곡 泗淵은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단장면사무소에서 밀양댐 방향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의 도로 좌측 유원지 아래로 흐르는 단장천이 크게 굽이돌며 흘러가는 굽이이다. 제2곡 鼎角山

은 단장천 남쪽으로 솟아 있는 산이고, 제3곡 泛棹淵은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마을 앞으로 단장천이 굽이돌며 만든 못이 있는 지점을 이르는데 범도리 맞은편의 4~5m 정도 되는 암벽에 단장천이 부딪히며 흘러가는 곳이다.

제4곡 昇鶴洞은 정각산 옆에 높이 솟은 승학산의 한 마을 이름이라 볼 수 있는데 범도연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7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단장천 가에 우뚝 솟아 있는 암벽 사이에 수령이 오래 된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점이 승학동이라 추정된다. 제5곡 丹崖는 현재 밀양시 단장면 평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리 앞을 흐르는 단장천 맞은편 시냇가에 솟아 있는 커다란 바위이다. 평리는 박귀원이 태어나고 생을 마감한 고례리에 속하는 자연 부락으로 고야구곡을 경영한 박귀원이 벼슬에 나간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친구를 돈독히 사귀던 곳이다. 사호정 정자를 짓고 학문에 정진하자 사방에서 많은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니 이는 주자가 무이구곡 제5곡 大隱扉에 武夷精舍를 짓고 학문에 정진하며 제자를 가르친 사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박귀원이 고야구곡 제5곡을 자신이 은거하던 단애로 설정하였다.

제6곡 甌沼는 고례리 앞에 있는 못으로 제5곡 단애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km 정도 거슬러 오른 곳에 단장천 맑은 물이 고여 만든 못이 나타나는데 이 못이 증소이다. 증소 우측 야산에는 그 옛날 농암대에 머물렀던 점필재 김종직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와서 가경에 심취하여 시를 지었다고 전해지는 洛洲亭이 있고, 정자 안에 甌淵書室이 있어서 이 굽이가 증소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제7곡 道藏淵은 밀양댐에 수몰되어 그 위치와 지형을 짐작하기도 어렵게 되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제6곡 증소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5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산중턱에 德達里가 있었고 그 너머 단장천에 도장연이 있었다고 한다.

제8곡 籠巖은 고야구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는 굽이로서 제7곡 도장연에서 물길을 따라 약 2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바위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굽이다. 농암 아래에는 50~60명이 앉을 수 있는 바위가 있었고 그 곁에는 점필재 김종직이 강학하던 籠巖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고, 농암정 곁의 바위에 '籠巖臺'라고 새겨 놓아 농암정이 있었던 지점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 굽이의 아랫부분은 밀양댐 건설로 물에 잠겼지만 그 윗부분은 잠기지 않아서 멀리서 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

제9곡 船沼는 제8곡 농암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km 정도 거슬러 오르는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밀양댐에 수몰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박귀원이 이 굽이를 고야구곡의 極處로 설정한 까닭은 이 지점이 밀양과 언양의 경계 지점에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소 가운데 浮石이 있었는데 배의 형상과 매우 닮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이 바위는 밀양댐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반출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다.

3. 박귀원은 옛날 주자가 무이구곡을 경영하며 入道했던 삶을 아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고야구곡에 내재하는 도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없어 고야구곡의 진경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적 안타까움을 형상화 하였다. 그는 고야구곡을 유람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유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 속에 내재하는 道를 궁구하는 것이 더 큰 목표였으므로 가경은 그가 궁구하고자 하는 도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파악하였다. 제3곡 범도연은 자신의 학문적 세계가 도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는 공간으로 여겼으며 제4곡 승학동에 깃들여 살았던 학도 한 마리 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고한 자태를 가진 학은 신선이 타고서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고고한 인품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제4곡시에서는 이 굽이에 있었던 학을 생각하며 그 옛날 고야에서 은거했던 선조의 생각하며 그 고고한 삶의 자취를 학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제5곡 단애는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살지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학문을 논하고 도를 궁구하는 은자, 바로 박귀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표상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증소에서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띠집을 짓고 사는 이의 한가로운 마음의 경지를 읊었다. 박귀원은 혼탁한 세상에 환멸을 느껴 세상과 거리를 두고서 엄광처럼 양구를 입고 隱者로 살 수도 있었으나 도장연에 이르러 羊裘 입는 것을 잊었다고 하여 세상과 단절된 은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는 儒學者가 되려는 꿈을 은유하였다.

제8곡 농암은 기이한 볼거리가 많다고 하여 극처에 가장 가까운 청정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빗대었고 오늘도 사람들이 뱃노래를 부르며 이 공간에 이른다고 하여 이곳이 청정한 세계, 儒者가 궁구하는 도가 존재하는 공간임을 우의하였다. 그리고 제9곡 선소에서는 바닥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이 선소를 채우므로 이러한 물빛은 동천을 청정하게 하고, 그 자신을 청정하게 하니 이 굽이에서 자연과 일체되는 자신의 심경을 형상화 하였다.

4. 따라서 고야구곡시는 박귀원이 고야구곡의 승경을 유람하면서 그곳을 도가 존재하는 청정한 공간으로 파악하고 세상과 단절된 은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는 유학자적인 꿈과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러자 하는 심경을 형상화한 托興寓意의 詩라고 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

- 姜正瑞, “九曲歌系 詩歌에 나타난 空間이미지와 志向意識”, 경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5-38쪽.
- 姜正瑞, “朝鮮後期の 武夷權歌 詩認識”, 東方漢文學 17, 동방한문학회, 1999, 19-30쪽.
- 권정은, “樓亭歌辭의 空間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205-230쪽.
-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경북사대, 1991, 35-86쪽.
- 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42,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241-274쪽.
- 김문기,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退溪學과 韓國文化 4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193-233쪽.
- 金文基, “陶山九曲의 設定과 陶山九曲詩의 展開”, 退溪의 文學과 思想, 제22차 退溪學國際學術會議, 國際退溪學會·嶺南退溪學研究院, 2009, 209-324쪽.
- 김문기, “高山七曲과 高山七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47,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0, 137-239쪽.
- 金文基, “張緯恒의 雲浦九曲 園林과 雲浦九曲詩”, 退溪學과 韓國文化 49,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1, 137-164쪽.
- 金文基, “水落臺九曲과 水落臺漁歌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50,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1, 241-2664쪽.
-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319-346쪽.
- 유준영, ‘조선시대 九曲圖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97.
- 윤진영, ‘朝鮮時代 九曲圖의 收容과 展開’, 미술사학연구 217, 한국미술사학회, 1998, 61-91쪽.
-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造景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9, 15-38쪽.

Abstract

## Park Gui-won's Goya-gugog(姑射九曲) Garden and His Poetry of Goya-gugog(姑射九曲詩)

Kim, Mun – Kie

Gyeongnam(慶南) provincial region including Busan(釜山) city and Ulsan(蔚山) city is somewhat far from Baekdudaegan(白頭大幹), a group of mountains along Korean peninsular back, but it is surrounded with Goya-gugog(姑射九曲), Nakdong-jeongmaek(洛東正脈) and Naknang-jeongmaek(洛南正脈), and is also a birthplace of brilliant Confucian scholars. That is why this region still cherishes Gugog garden such as Goya-gugog(姑射九曲), Geumcheon-gugog(琴川九曲), Bangye-guog(磻溪九曲), Baekryeon-gugog(白蓮九曲), Jangjeon-gugog(長田九曲), Wonmyeong-gugog(源明九曲) and Haein-gugog(海印九曲).

Among these Gugog gardens, Goyagugog, a historic place known to be set and run by Chaejidang(采芝堂) Park Gui-won(朴龜元), is possibly presumed to be the first gugog garden in Korean history. Thus, the author of this paper conducted 2 cases of academic survey on Goya-gugog and made a further analysis and examination into poems and relevant literatures about Goya-gugog.

The author of this paper found that Park Gui-won came from his official life back to Gorye-ri (Danjang-myeon, Miryang-gun, Gyeongnam Province) as his hometown, where he shared fellowships with his contemporary representative local Confucian scholars such as Kim Jong-jik(金宗直), Kim Goeng-pil(金宏弼) and Jeong Yeo-chang(鄭汝昌), and also established Gugog(九曲) and created Gugog poems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 as evidenced by existing writings and life history of deceased Park - e.g. Chaejidang Seonsaeng-yugo(采芝堂先生遺稿) in Milseong-sego(密城世稿).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gugog garden in Goya area, Miryang was evidenced by Kim Jong-jik's poem titled "Hongryudong(紅流洞)"

This study concluded that Goya-gugog poems written by Park intended to identify beautiful scenery of Goya-gugog as a pure place of Tao(道) when he went sightseeing around it, and those poems sought to embody his Confucian dream for exploring the reason of nature with life in nature, not hermitic life isolated from world, and express his longing for reaching a stage of unity between physical and mental world(物我一體).

**Key Word**

Goya-gugog(姑射九曲), Goya-gugog poetry(姑射九曲詩), Park Gui-won(朴龜元), Mui-gugog(武夷九曲), Gugog garden(九曲園林), Gugog culture(九曲文化)

▪ 논문투고일 : 2013.1.10.    심사완료일 : 2013.2.12.    게재결정일 : 2013.2.13.